

#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위한 유물 기증

이희준 씨, 평생 수집한 서예소장품 72점 기증... 김제 서예 역사 재조명 기여 기대

김제시는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을 위해 이희준(봉남면)씨로부터 총 72점의 유물을 최초로 기증받았다.

이희준씨는 봉남면에서 농사를 지으며 벌어들인 수익으로 40여년 간 서화유물을 사 모았으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집한 유물을 경로당·마을회관 등에 여러 차례 기증해왔다.

특히 2018년도에는 자신의 소장품을 전시한 한국근현대서화유물전을 개최하고, 도록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김제의 서예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희준씨는 "예술의 생명은 길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평생 유물을 수집하였고, 기증유물이 김제서예문화전시관에 영구히 전시되어 많은 분들과 김제 서예의 우수함을 공유하고 그 의미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희준씨가 시에 기증한 유물은 김제를 대표하는 근현대 서예가들의 유물인 유하 유영완 일가의 묵죽도를 비롯하여 오무 김진영, 아산 송하영 등의 유물로 김제 근현대 서예사 연구



에 중요한 자료로 김제 서예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증된 유물은 기증자의 뜻에 따라 전시관 소장품으로 등록해 영구보존, 특별전시·연구·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기증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수여하고 전시관 건립 후에는 기증자 명패를 게시하는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를 포함한 전북지역에 서예유물을 다량 소장한 개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기증이 개인소유의 미술품 기증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서예관련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어 열악한 보존환경에 놓여 있는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는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을 위해 조상들의 숨결과 혼이 깃들여 있는 귀중한 서예문화 관련 유물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유물 기증에 관한 문의는 문화홍보축적실로 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화학은 우리네 세상과 이어져 있다'

전북대 김성식 명예교수, '상상과 현실이 통하다-화학으로 세상보기' 출간

전북대학교 김성식 명예교수가 최근 '상상과 현실이 통하다-화학으로 세상보기'를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책에서 일반인이 어렵게만 생각하는 화학(Chemistry)을 우리네 세상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음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는 △설희록 흙즈의 귀환, △지킬과 하이드, △클레오파트라와 진주, △제5원소, △하울의 움직이는 성, △리그 오브 레전드, △스파이더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겨울왕국, △붉은 수수밭, △왕 어버린 제국,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등 세상 모든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한 열두 가지 주제가 담겨 있다. 누구나 들으면 일반적인 영화를 주제로 현실과 맞닿아 있는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다.

각 장에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범죄 과학과 과학, 세상 만물의 이종성, 보석과 광물, 미술과 연금술, 나노 로봇과 분자 기계, 스포츠와 e스포츠, 하이브리드 거미와 꿈의 신소재, 판타지 세상과 스마트한 미래 기술, 극한의 생명체들, 세상의 모든 레드, 지속 가능한 세상과 그린 케미스트리 등 화학의 핵심 주제들이 들어 있다. 작가에 따르면 우리와 맞닿아 있는 화학



이야기의 시작은 3년 전 시작됐다. 화학이 재미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전할까를 고민했던 화학자들이 당시 배낭여행을 떠나 화학이 세상과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책 '상상과 현실을 잇다' 화학으로 세상보기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이번엔 발간된 서적이다.

/장은성 기자

#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키즈스테이지 안전하게 진행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

지난 6월 3일부터 2주에 걸쳐 총 7일 동안 아홉 번째 영화 소풍길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9월 13일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과 가족 관객을 위한 영화상영 프로그램 '키즈스테이지'를 무주군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객 프로그램인 키즈스테이지를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6월 본 영화제 기간 이후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3일부터 무주에 거주 중인 어린이 및 청소년 관객들을 대상으로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키즈스테이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무주산골영화제 키즈스테이지는 자연을 좋아하는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자유롭게 영화를 감상하고, 토크 및 워크숍 등의 교육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중심의 영화 프로그램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무주교육지원청의 지원과 협력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지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주산골영화제 운영 방식이 온·오프라인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키즈스테이지를 무주군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직접 찾아가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 특별 운영하기도 했다.

올해 2021년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 키즈스테이지는 9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하며, 예년과 달리 무주군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참여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올해 키즈스테이지 상영작인 <내언니전지현과 나>(감독 박윤진), <레시 컴 홈>(감독 올더디센 하노), <레미: 집 없는 아이>(감독 앙투안블로시에르), <소년 시절의 너>(감독 중국상), <야구소녀>(감독 최은태) 중 한 편을 선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9월 13일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과 가족 관객을 위한 영화상영 프로그램 '키즈스테이지'를 무주군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

택해 무주산골영화제 지지후 프로그램의 영화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이번에는 영화 관람을 신청한 학교의 학생들을 무주산골영화관으로 직접 초대해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지훈 무주산골영화제 부집행위원장 겸 프로그램머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문화 교육 활동이 어려워지고, 정식 극장에서 영화 관

람의 기회가 적은 무주 학생들이 무주산골영화제의 키즈스테이지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화를 보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모든 키즈스테이지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우석대 홍지민 초빙교원, '아티스트 인사이트' 공연

21일 성남아트센터서 뮤지컬학과 재학생 13명도 함께 무대 올라

우석대학교 홍지민 초빙교원(뮤지컬학과)이 오는 21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아티스트 인사이트' 뮤지컬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지민 초빙교원은 이날 서울예술단 단원으로 시작해 가수로의 도전과 실패를 거쳐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하면서 엄마이자 배우 등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삶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려줄 예정이다.

3부로 구성된 공연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전담 지휘자로 활동 중인 최영선 씨가 지휘를 연주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맡으며 총 12곡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우석대학교 뮤지컬학과 재학생 13명도 스승인 홍지민 초빙교원과 함께 무대에 올라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같이 선보일 예정이다.

홍지민 초빙교원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준비한 무대가 관객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공연예술 분야를 선도할 후학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에 출연하는 뮤지컬학과 재학생 13명은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에 참여, 홍지민



초빙교원의 지도 아래 스스로 기획과 설계·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해결 능력과 팀워크를 키웠다.

/장은성 기자

# 당북초, 비대면 영상 발표회 '슬기로운 당북생활'

국악·전통 문화 등 프로그램 진행

당북초등학교(교장 문홍운)는 6일 본교 강당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10번째 예술꽃 학교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로 문화 예술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예술꽃 동아리를 운영, 그동안의 갈고 닦은 솜씨를 뽐냈다.

'슬기로운 당북생활'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이번 예술꽃학교 발표회는 지난 달 미술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초·중등부 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당북초가 자랑하는 당북나래 국악관현악단의 소리놀이 '1+'을 시작으로 총 1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각 학년 및 동아리별로 이뤄진 공연 팀들은 꾸준히 연습해 온 국악과 전통 문화를 선보였다.

문홍운 교장은 "우리의 것을 이해하고 즐길 줄 아는 아이들이 점차 우리 고장과 나라의



당북초등학교는 6일 본교 강당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10번째 예술꽃 학교 발표회를 개최했다.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이번 발표회를 준비해 온 학생들을 격려

/장은성 기자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검색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